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45]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9. 15 | 발행인 : 민무숙

제주특별자치도 재가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정책 과제¹⁾

정 여 진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들어가며
2. 제주지역 재가 치매노인 부양가족 실태조사 결과
3.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대구광역시「기억학교」사례 분석
4. 논의 및 시사점

1) 본 내용은 정여진 · 고승한(2019) 「제주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서비스 욕구실태와 정책과제」, 2019년 제2차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정책의 방향과 과제」 자료집, 대구광역시 기억학교협회 내부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1. 들어가며

- 전국의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8년 추정 환자수²⁾는 750,488명이고, 이 중 여성이 약 48만명(62%)으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 제주지역은 치매환자수는 10,256명이고 이 중 여성이 6,902명(67.3%)으로 전국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임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3천억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며, 1인당 치매환자 연간 관리 비용은 2,074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소득 대비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로 인한 사회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는 전체의 55.1%에 달하며 이들은 별다른 치료적 개입 없이 주로 가족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고령의 자녀와 배우자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는 다른 정신질환자의 가족부양자보다 스트레스는 15%, 우울은 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중앙치매센터, 2017a)
- 치매는 매우 장기적이며 퇴행적인 특성을 가진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노인과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주 부양자 446명을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대구광역시의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기억학교” 사례 분석을 통해 초기 경증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제주지역 재가 치매노인 부양실태 조사결과

■ 조사개요

조사 대상	제주지역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주 부양자 446명
조사 방법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9년 4월 11일 ~ 5월 1일(21일간)
응답자 특성	성 별 : 여성 285명(63.9%) 남성 161명(36.1%) / 평균연령 : 57.9세(여성 57.7세, 남성 58.4세)
표본 오차	±4.%p, 95%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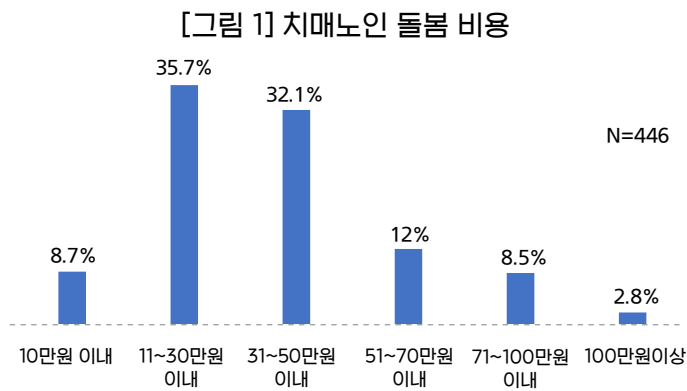
2) 추정치매환자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연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 수에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의 성별(남/여), 연령별(60세 이상, 5세 단위 연령 구간별) 표준화 치매유병률을 각기 적용하여 최종 합산함
 - 2015-2019 :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 2019)
 - 2020-2067 :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 2019)

■ 치매노인 특성

- 응답자들이 부양하고 있는 제주지역 재가 치매노인의 성별은 여성이 76.9%, 남성이 23.1%임. 평균 연령은 84.4세로 여성은 84.7세 남성은 81.0세로 나타남
- 치매 발병 후 확진까지 소요기간은 1년 미만인 44.2%, 2년 이상이 55.8%로 나타났고, 장기요양 등급은 경증(4~5등급)이 59.2%로 가장 많고 중증(1~3등급)이 2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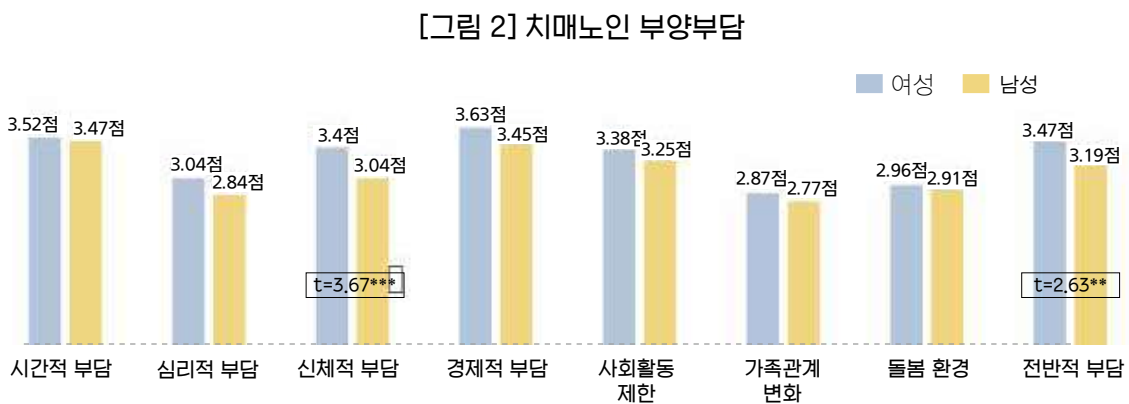
■ 치매노인 돌봄 기간 및 비용

- **(돌봄 기간)** 치매노인 평균 돌봄 기간은 평균 50.28개월로 약 4년 1개월 정도로 나타남
- **(하루 평균 돌봄 시간)**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6시간으로 나타남
- **(돌봄 비용)**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드는 한달 평균 비용은 43만9천원 가량이고, '11만원~30만원 이내'가 35.7%로 가장 많고, '31만원~50만원 이내'가 32.1%, '51만원~70만원 이내'가 12.0%로 나타남



■ 치매노인 부양 부담

- **(부양 부담)**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느끼는 부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부양 부담은 5점 만점에 3.19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부담'과 '전반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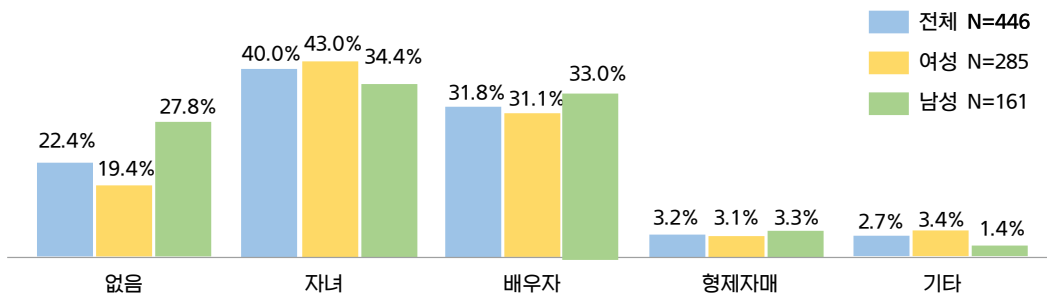


주 : 5점 척도의 평균값임(전혀 모름 1점, 잘 모름 2점, 보통 3점, 조금알고 있음 4점, 잘 알고 있음 5점)



-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실직 경험)** 부양부담으로 인한 실직 경험은 전체의 24.9%이고, 성별로는 여성이 30.5%로 남성 14.9%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실직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현재 취업형태는 '직업 없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간제 형태 근로임
- **(치매노인 외 부양가족 여부)** 치매노인 외 부양가족은 자녀 40.0%, 배우자 31.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없음'이 27.8%인데 비해 여성은 19.4%로 응답하여 여성의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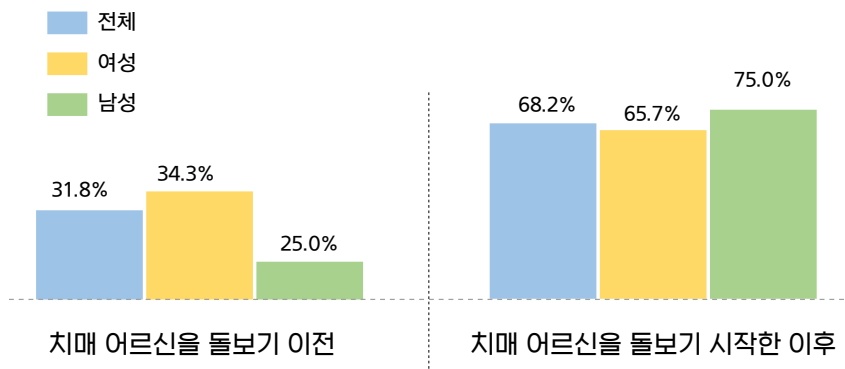
[그림 3] 치매노인 외 부양가족 여부



치매정보 및 교육

- **(치매교육 경험)** 치매에 관한 교육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37.9%로 남성 24.8%보다 높게 나타나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 도움 정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4점으로 나타나, 남성은 교육 경험은 적지만 교육의 성과는 같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시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점을 조사한 결과, '치매노인을 돌보기 이전'보다 '돌보기 시작한 이후'가 더 높았고 특히 여성들은 돌봄 이후에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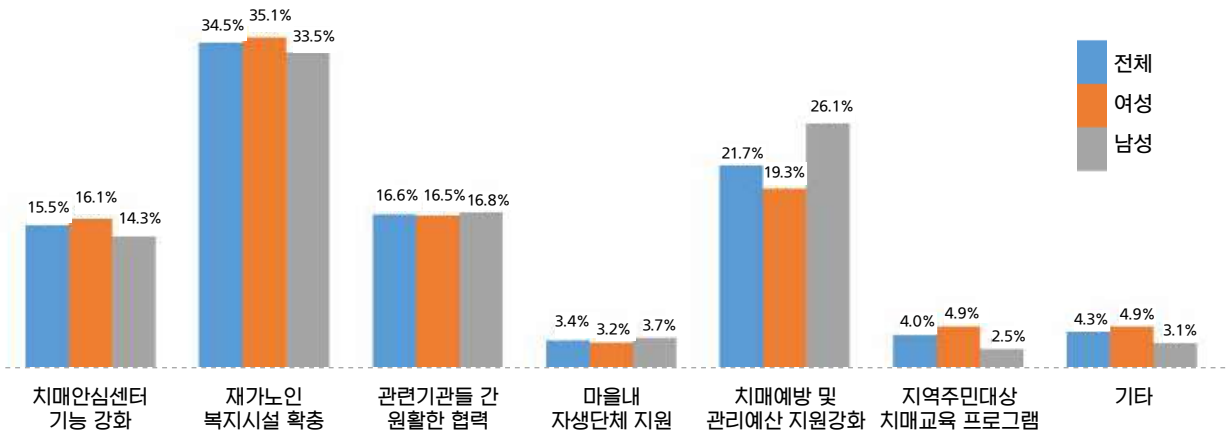
[그림 4] 교육경험 시점



■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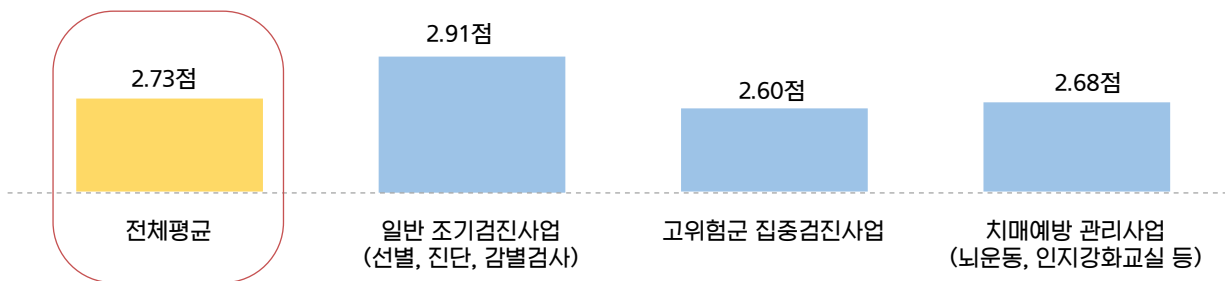
- **(재가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이 34.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련 기관들 간 원활한 협력'이 16.6%,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15.5%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뢰 제고' 등 임

[그림 5] 치매노인 재가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및 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 및 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73점으로 잘 모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홍보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서비스별로는 '일반 조기검진사업' 2.91점, '치매예방 관리사업' 2.68점,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2.60점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6]치매안심센터 : 조기검진 및 예방 관리사업 인지도



주 : 5점 척도의 평균값임(전혀 모름 1점, 잘 모름 2점, 보통 3점, 조금알고 있음 4점, 잘 알고 있음 5점)

- **(치매지원정책 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 치매지원정책 중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주야간보호 서비스 강화' 28.8% , '방문간호, 방문요양' 25.1%, '치매부양물품 제공 확대' 19.8%, '치매안심병원 확충' 19.6%순으로 나타남



3.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대구광역시 「기억학교」 사례 분석

-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 치매예방 및 관리 정책 특화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지재활 및 치매예방, 특성화된 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억학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3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각 구별로 15개소가 설립되어 있고, 총 종사자는 135명, 이용자 총 600명 정도임.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인지 재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받아 시민투표로 진행된 「2018년 대구를 빛낸 우수 시정 선정 Best of best 10」에서 5위에 선정됨. 현재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사업 개요는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기억학교 운영 기준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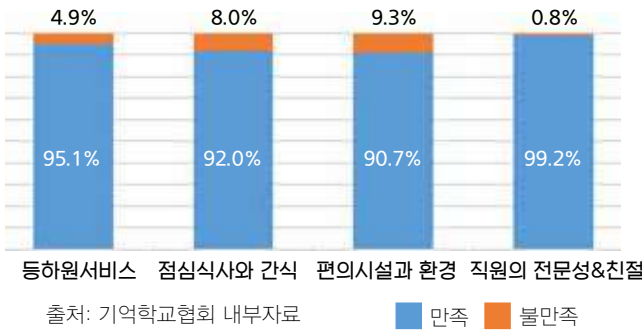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시설 운영 기준	이용 대상자	대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중, 치매확진자,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
	인력 기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간호인력(간호, 물리, 작업)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총 9명
	시설 기준	정원 40명, 연면적 295㎡ 이상,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로 신고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수
서비스 내용	치매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 보호자상담, 어르신상담, 사례회의, 보호자 자조모임 • 교육사업 : 어르신교육, 보호자교육, 직원교육
	치매 치료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연계 : 병원진료 및 약처방 동행 • 치매관리 : 바이탈 및 당뇨체크, 투약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프로그램 : 작업교실, 원예교실, 미술교실, 음악교실, 웃음교실, 놀이교실, 요리교실, 회상교실, 철교교실, 한방교실, 전산인지프로그램 등 • 기능회복지원 : 건강체조, 치매예방체조, 물리치료 • 일상생활지원 : 몸단장, 건강약차, 문화생활, 일상생활훈련 등 • 특별사업지원 : 나들이행사, 절기행사 등 기타 특별행사
	주간보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영서비스 : 오전, 오후 송영(차량지원)서비스 제공 • 식사서비스 : 중·간식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연계 : 치매관련행사 및 지역복지행사 등 • 후원 및 봉사활동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관리

■ 기억학교 이용 만족도 및 효과성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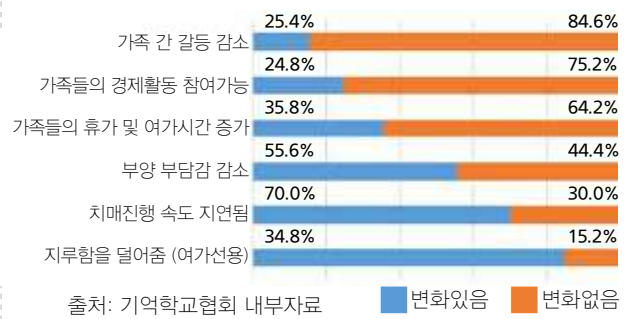
- 기억학교 서비스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등·하원 차량(송영)서비스 95.1%, 점심식사와 간식 92%, 편의 시설과 환경 90.7%, 직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가진 친절의 정도에 9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 기억학교 이용 후 변화를 살펴보면, ‘지루함을 덜어줌(여가선용)’에 응답자의 84.8%, ‘치매진행 속도 지연’에 70%,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의 부양부담 감소’에 55.6%, ‘가족의 휴식 및 여가활동’에 35.8%,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의 증가(취업 등)’에 24.8%, ‘가족 간 갈등의 감소’에 15.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림 8> 참조)

3) 기억학교협회에서 2015년 8월에 실시한 「기억학교 보호자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호자 245명 및 이용자 118명 참여

[그림 7] 서비스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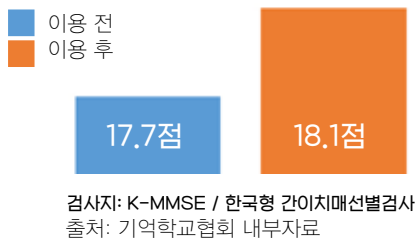
[그림 8] 이용 후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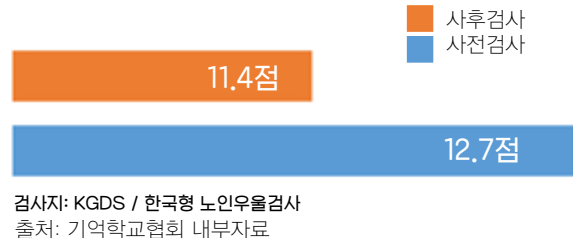
■ 인지 및 우울 변화 정도⁴⁾

- 기억학교 이용자의 인지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간이치매선별검사(이하 K-MMSE)를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 17.7점에서 사후검사 18.1점으로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억학교 이용이 기억력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그림 9> 참조)
- 기억학교 이용자의 우울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GDS)를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 12.7점에서 사후검사 11.4점으로 1.3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이용자들이 기억학교 이용을 통해 기분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나타냄⁵⁾ (<그림 10> 참조)

[그림 9] > 인지 변화 정도



[그림 10] 우울 변화 정도



4. 논의 및 시사점

■ 재가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호 서비스 확대 및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제주지역 재가 치매노인 실태조사 결과, 주 부양자는 50대 여성이 가장 많고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6 시간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양부담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 예견됨. 또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실직 경험은 4명 중 1명꼴이며, 이들은 현재 직업이 없거나 시간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주야간보호 서비스 강화'로 나타나, 부양자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함께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2017~2018년 1년간 이용자 대상 조사, 기억학교는 초기 상담 및 이용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인지 및 우울변화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5) KGDS 검사결과에서 0~13점 사이를 '정상'으로, 14~18점 사이를 가벼운 우울로 판단하고 있음

■ 치매초기 적극적 개입 및 치매안심센터 홍보 활성화 필요

- 치매노인의 55.8%가 발병 후 확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정에서 지내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초기 치매 발병 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할 경우 치매노인 가족은 향후 8년간 돌봄 비용을 약 6,400만원 줄일 수 있고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을 55% 감소할 수 있음.⁶⁾ 따라서 향후 치매안심센터 홍보 활성화를 통한 조기진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초기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치매 관련 교육 활성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필요

- 치매 관련 교육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3.2%에 불과하지만 교육의 효과는 전체의 65.3%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음.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 시점은 대부분 가족 내에 치매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나타남. 향후 부양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치매 정보 및 교육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제주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더불어 시민교육 기관 그리고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 등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을 받은 치매 부양가족에게 한정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가칭) 훈디 기억학교” 운영 필요

- 대구광역시의 기억학교 사례에서 보듯,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치매노인들의 인지향상 및 우울의 감소를 가져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또한 치매노인의 낮동안 보호를 통해 가족의 휴식 및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갈등 해소 및 부양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선제적 보호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진입을 지연시켜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치매노인 및 부양가족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사업들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지원 정책이 없음. 이러한 국가주도 및 공급자 결정에 따른 하향식 접근(top-down) 방식은 강력한 국가 개입으로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는 기여하였지만,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획일주의라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 치매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횟수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맞추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을 듣고 나오는 정도 이외에 자신들의 선택이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환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들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환자를 맞추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치매 진료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반짝반짝 뇌운동’ 및 체조,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탈시설화에 의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치매정책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발견-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증 치매노인 관리 정책인 “(가칭) 훈디 기억학교”를 제주지역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때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송영서비스 제공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치매노인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방치되지 않고 치매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자료 : 치매정보 훈디모아